

동해해수청,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원권역 항로표지 수요조사 실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채균)은 강원권역 동해안 해역에서 선박 통항 위험성이 있는 곳에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로표지시설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로표지시설이란 빛, 형상, 음향, 색채, 전파 등으로 선박에게 항의 출입로, 인근 암초와 같은 장애물의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선박을 안전한 항로로 안내하는 시설로 대표적으로 등대, 등표, 입표 등이 있다.

이번 항로표지 수요조사는 4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강원 동해안의 어업 종사자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조사하고, 그 의견을 검토하여 항로표지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량 또는 추가 설치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참고로, 동해해수청은 지난 항로표지 수요조사를 통해 강원도 고성군의 봉포항 죽도 인근 해역의 암초와 고성군 대진항 북방 해역의 암초를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시설의 신규 설치를 항로표지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선박을 안전한 항로로 안내하는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통항의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책임자	과 장	김동식 (033-520-6271)
		담당자	주무관	김관우 (033-520-6277)

참고**주요 항로표지의 종류**

등대		항만의 소재, 항의 입구 등을 알리기 위해 연안의 육지에 설치된 등화를 갖춘 탑 모양의 구조물
등표		암초나 수심이 얇은 곳에 설치하여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애물 및 항로의 소재를 알리기 위해 등화를 갖춘 구조물
등부표		선박에 암초나 수심이 얇은 곳을 알리거나, 항로의 경계를 알리기 위해 해상의 고정 위치에 띄워놓은 등화를 갖춘 구조물
입표		암초나 수심이 얇은 곳에 설치하여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애물 및 항로의 소재를 알리기 위한 구조물(등화 없음)